|  |  |  |  |
| --- | --- | --- | --- |
| **2018 청년관광 아이디어 제안서** | | | |
|  | | 공모분야 | 관광상품 |
| 상품명 | <충남으로부터 온 초대장> : 공주 여행을 바탕으로 한 6차 산업 상품의 개선점과 이를 활용한 신 관광 상품 제안 | | |
|  | | | |
| ❑ 제안내용  ( 관광명소 및 관광코스 등 상품 관련 내용,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 등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위의 공주 여행을 바탕으로 우리 팀이 도출해낸 현 충남 ‘6차 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문제점들은 현 대한민국 6차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장하여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관련 전공 학생들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학생들의 관심이나 체험 현장에 대한 인지도, 선호가 높지 않음. 각 농가에 적지만 마련된 체험 학습장들은 점차 소외됨. 사실 관련 전공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농촌의 현장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와 전통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가치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에 전통을 토대로 현대에 적용한 한국다움을 세계로 알릴 수 있을 것. 가령 식품을 전공하는 학생은, 비단 전통 장의 달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땅에서 나는 곡식,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한 깊고 탄탄한 이해를 무기로 한식의 세계화 진출이 가능해질 것. 그 가운데에서 전통 장의 달인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브랜딩 전문가가 탄생한다면 더욱 멋진 일일 것. (전공학생 예시: 식품영양학, 농업학, 사학, 관광학, 역사교육, 경영학, 문화콘텐츠학, 도시사회학 등)  두 번째는 6차산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와 농민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점. 농민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농업 역시 1차든, 2차든, 3차든 간에 매 과정마다 고난도의 전문 지식과 실질적인 스킬이 필요함. 그런 상황에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그 자체로 매우 부담스러움. 2차, 즉 상품으로의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민은 상품을 고객들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농민에게 직접 농산품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체험 업장까지 운영하라는 일은 무리가 있음. 관광 정책 및 상품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주체(지자체)와, 그 상품을 운영하고 나서서 홍보, 판매해야하는 주체(농민)가 손 발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일.  세 번째는 각 시군 내 관광 컨셉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고,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가령 이번에 다녀온 공주만 살펴 봐도 ‘백제의 옛 수도’라는 뚜렷한 컨셉이 공주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점에서 컨셉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주 여행 후에도 ‘백제 유적지더라’, ‘곰이 유명하대’ 외의 특별한 긍정 경험은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공주는 여러 지역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뚜렷한 컨셉이 있는 지역의 예시에 속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충남에서 보면 태안, 논산, 서산 등 명확한 스토리가 없는 지역은 일반인들에게 소구되기가 매우 까다롭.  위와 같은 점들이 우리가 생각한 문제들. 이를 위한 해결방법으로서 6차 산업의 상품을 2.0 버전으로 개선하고자 함. 크게 6차 산업의 과정을 기획 – 운영 – 배포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기획 단계에서는 공무원 – 농민 간 원활한 피드백 및 네트워킹이 필요. 운영 단계에서는 1차 산업을 농민이 맡는다고 가정, 관련 전공 학생들의 수업과 연계하여 2차 산업의 일손을 보충할 수 있고 앞선 문제점에서 겪는 시간 및 노동력의 부족을 일부분 완화. 더해서 3차 산업은 지자체가 담당, 지역 축제 등 오프라인 판로, 자체 플랫폼 또는 e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 등을 개척해줘야 하는 것에 책임감이 있어야 함. 세 번째로 배포의 경우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년 예술가, 장애를 가진 예술가, 착한 기업 등 작품이 초대장으로서 배포. 바이럴 확산 + 초대장, 엽서 등의 방식으로 충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부터 긍정 경험 쌓아 줌. 체험을 재미있게 하고 온 다음, 체험한 것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가공을 농가에서 준비. 농가에서 각 가정보다는 우수한 조건에서 체험한 내용을 좀 더 다듬어 가정에 배달. 차, 전통 장, 젓갈, 도자기 등 2차 산업 과정에서 체험,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다만 시간을 통해 더 훌륭한 질로 거듭날 수 있는 작품들을 배송함으로써 충남에 다녀와서도 긍정 경험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그리고 전체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팜파티 형식이 지자체 주최, 농민 후원 등으로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임. 그들이 모일 곳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네트워킹을 통한 사무실과 현장 사이의 갭을 줄여서 더 나은 방향의 6차 산업이 실천되기를 바람. | | | |
| ❑ 여행수기  ※ 상기 형식에 따라 A4지 용지기준 2 ~10매 작성 원칙이나 반드시 형식에 맞출 필요 없음 | | | |